

# 한국수의해부학용어의 제정과 개정에 대하여

— 수의해부학회 용어제정위원회의 글을 읽고 —

백영기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대** 한수의사회지 9월호에 게재된 “수의해부학용어 제정 경위와 개정의 당위성”의 글을 읽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해부학용어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1) “1991년에 수의해부학용어를 처음 제정할 당시에도 한글화 작업을 막 시작한 사람해부학용어를 준용하였는데 이때에도 수의학의 다른 전공자는 물론 같은 해부학전공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다.”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필자는 그 당시에 용어제정을 직접 추진하였던 한국가축해부학연구회 회장 직을 맡고 있었는데, 한사람도 용어 제정을 반대한 사람이 없었고, 1990년에 제정된 인체해부학용어가 매우 잘 되었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동일한 해부학적구조에 대하여는 인체용어를 따르고 가축에만 존재하는 구조나 동물의 특수성에 따라 인체용어를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는 새로 제정하지는

데 의견에도 이의가 없었다.

예를 들면 국제해부학용어인 인체용어와 국제수의해부학용어가 동일한 *Ossa carpi*로 되어 있는데, 인체용어에서는 “손목뼈”로 제정되었지만 가축에서는 “앞발목뼈”로 하고, *Ossa digitorum manus*는 인체용어가 “손가락뼈”로 되어있지만 가축에서는 “앞발가락뼈”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Forepaw”(Evans의 “Miller’s Anatomy of the Dog” p.192 참조), 독일에서는 “Vorderfußes”(Nickel, Schummer, Seiferle의 “Lehrbuch der Anatomie der Haustiere” Band I. p.76, Skelett des Vorderfußes, Skeleton manus 참조)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는 아직도 국제수의해부학용어의 미국 용어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라틴어를 영어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통일된 용어집이 없다.

통일된 용어가 없어도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

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체해부학용어도 100여 년 동안 라틴어용어만을 국제적인 공식용어로 사용하다가 9년 전인 1998년에서야 FCAT에서 “Terminologia Anatomica”에 영어명도 공식용어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결정하였다.

2) “수의해부학용어는 사람해부학용어를 따른다”는 것은 국제적인 약속이며 용어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다. 따라서 인체에 있는 구조가 동물에 있는 경우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1968년에 발간된 Nomina Anatomica Veterinaria 제1판부터 2005년에 발간된 제5판까지의 머리말(Introduction) 어디에도 수의해부학용어는 사람해부학용어를 따라야 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이나 대원칙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약속이나 대원칙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해부학적구조가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먼저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체해부학용어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를 따르는 것이다. 수의학자가 가축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질병이나 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명칭으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사람의학에서도 이를 따르는 것이 상식이며, 다른 이름을 명명하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가축의 특수성 때문에 인체해부학용어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는 그에 통용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인체해부학용어가 “손가락”이니 수의해부학에서 말의 앞발가락도 “손가락”이라고 제정한다면 인체해부학자들도 웃을 것이다.

사람의 manus는 “손”으로 번역하지만 말의 manus는 “앞발”로 번역하는 것이 상식이다.

일본의 수의해부학용어도 국제용어(라틴어용어)가 동일하고 다른 용어로 제정할 사유가 없는 해부학적 구조는 거의 인체해부학용어와 동일한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라틴어용어도 다르게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발견된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Os irregulare를 인체해부학용어는 “不規則骨”로 표기하는데 수의해부학용어는 “不整骨”로 표기하고 있으며, Costae fluctantes는 인체해부학용어로 “浮遊肋”인데 수의해부학용어는 “浮肋”이고, Subthalamus는 인체해부학용어로 “腹側視床”인데 수의해부학용어는 “視床傍下部[視床腹部]”로 사용하고 있다.

해부학용어의 제정에 따르는 7원칙은 국제수의해부학회에서도 N.A.(국제해부학회)의 원칙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국제수의해부학용어집 제1판의 머리말), 이는 “극히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각각의 해부학적인 개념은 한 개의 용어로 지명되어야 한다.”를 비롯하여 “각각의 용어는 공식적인 기록에 있어 라틴어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모든 나라의 해부학자들은 라틴어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나라의 용어로 번역하

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의 이름은 해부학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등, 7개의 제정원칙이고, 인체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해부학용어의 제정원칙”은 白泳基 著 獸醫比較解剖學 上卷 p.17 참조).

참고적으로 1987년에 개정한 일본가축해부학용어집 제3판에 기재되어 있는 “개정 3판의 개판(改版) 방침과 용어 운용법”에 관한 글 가운데 「“결정된 용어는 적어도 가축해부학 관계자에게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의 축산 및 기타의 관련분야에서도 사용되고, 해부학 전반에서도 통용되는 용어가 바람직하며, 그를 위해서는 범용(汎用)되고 관용(慣用)됨과 아울러 내용에 준거하는 용어가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3) “사람해부학용어를 그대로 써야한다는 대원칙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람해부학용어를 바탕으로 하여 어느 정도 한글화된 수의해부학용어를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이 용어로 교육해 온 결과 현재는 한글화된 용어가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싶다. 공식적인 수의해부학용어가 없어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국가축해부학연구회원 모두가 인식하고 1982년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꾸준히 준비하여 왔으며, 1990년에 대한해부학회가 인체해부학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용어로 제정한 것을 계기로 하여 가축해부학연구회 회원 모두의 뜻

으로 수의해부학용어의 제정을 착수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처음으로 제정하는 용어이니 국제수의해부학용어나 일본의 수의해부학용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해부학적구조에는 먼저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체해부학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가축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새로운 용어를 제정하였으며, 1990년에 제정된 인체해부학용어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쉽게 이해되는 한자용어(예: 십이지장, 맹장, 결장 등)는 그대로 사용하고, 어렵거나 사용하기 불편한 한자용어를 아름다운 한글용어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필자를 비롯한 많은 수의해부학자들이 찬성하여 이에 따랐다는 사실은 앞서도 언급하였다. 그런데, 1996년에 제정된 인체해부학용어 넷째판의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가 혼란이 야기되니 처음에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여 개정을 유보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가축해부학용어를 제정하여 출간한 한국가축해부학용어집은 전국의 수의 축산 관계 기관과 전국의 수의학, 축산학 교수 전원에게 무상으로 증정하고 새로운 해부학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14년 동안 해부학교육을 실시하였지만 해부학 이외의 기초수리학을 비롯한 임상수의학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많은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보는 관점의 차이이기는 하

졌지만 필자는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장”이 “주름창자”→“잘록창자”로 바뀌었으니 혼란스럽고, “잘록창자”로 정착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장”이라는 용어가 잘 못된 용어가 아니고,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으니 수의학분야에서는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며, 예를 들어 “결장”이 “잘록창자”로 널리 쓰이게 되고 그 용어가 정착된 후에는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부학용어도 해부학의 발전에 따라 바뀌지 않을 수 없는데, 바뀌는 내용은 학술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나 새로 추가 또는 삭제해야 할 용어가 대부분이며, 그 동안에 사용하던 용어 자체(철자, 스펠링)를 바꾸는 일은 매우 적다.

십이지장(十二指腸 : 일본, 중국, 한국, Zwölffingerdarm : 독일)이라는 용어는 사리(事理)에 잘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이지만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라 바꾸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샘창자”라는 용어는 합리적인 용어 같지만, 십이지장 이외의 창자에도 샘이 있으니 다시 창의적인 용어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십이지장(十二指腸)을 일본이나 중국에서 “腺腸”이라는 용어로 바꿀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 한자문화권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의 용어가 모두 다른 것 보다는 동일한 것이 편리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2005년)에 개정된 국제수의해부학용어

제5판을 보면 제4판의 내용에 일부분이 추가 또는 삭제되고(일반용어 약 100개가 추가되고 림프계통, 외피의 일부 용어가 추가, 또는 삭제된 것이 눈에 띄일 따름이다). 용어 자체가 바뀐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한자용어(인체용어)도 국제해부학용어(J.N.A.)를 채택하여 1944년에 처음으로 제정하였는데, 1946년에 내각 훈령으로 1,850자의 당용한자(當用漢字)가 제정된 후, 그에 맞추어 한자용어를 일부 바꾸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용어 자체를 바꾸지 않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 수의학분야에서는 수의학분야와 축산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니 이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인에게도 이해가 되고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의, 축산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인체해부학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이를 사용하겠다는 여론이 많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수의학분야만을 위한 용어를 만들어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며, 큰 문제가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용어를 자주 바꾸어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삼가 해야 할 것이다. 수의학분야용어는 처음에 제정한 용어의 정착에 힘쓰고, 새로 바뀌는 인체해부학용어에 따르는 일은 그 용어가 정착되어 널리 사용될 때에 결정하여도 수의학교육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번의 용어개정은 유보하기를 거듭 바라는 바이다.  수